

## 언간을 통해 본 19세기 양반가의 일상과 문화\*

— 초계 정씨 가문의 여성 한글 간찰을 중심으로 —

홍인숙\*\*

<차 례>

1. 서론- 조선 후기 가문 전승 언간의 자료 상황과 초계 정씨 언간
2. 초계 정씨 언간 자료군의 양상과 특징
  - (1) 전체 자료의 개관
  - (2) 인물 및 시기 집중성
3. 초계 정씨 언간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생활 문화
  - 가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여성
  - (1) 경제적 관리와 운영의 중추
  - (2) 과거(科擧) 전략과 기획의 지원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19세기 후반 거창 지역에 세거했던 초계 정씨 가문의 한글 간찰의 자료적 특징을 밝히고 그 문화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주요 필자인 밀양 변씨의 간찰 10편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양반 가문의 일상 문화와 양반 여성이 수행했던 가문에서의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우선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조선 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자료집 10권에 실려 있는 ‘초계 정씨 한글 간찰’ 40여 편을 대상으로 주요 필자와 등장 인물, 왕래 관계, 작성 연대 등을 밝히는 기본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초계 정씨 간찰이 조선 후기 다른 가문의 언간 자료군과는 변별되는 특성으로 인물과 시기 면에서 ‘집중성’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여러 간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가족사적 기점 사건과 세대별 중심 인물 및 핵심 관계들을 살펴보았다.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 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다음으로 정씨 인간에서 가장 핵심 필자인 정현상의 며느리이자 정씨 가문의 종부였던 밀양 변씨의 인간을 중심으로 ‘가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양반 가문의 생활 문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변씨의 간찰은 조선후기 지방의 양반 가문에서 수입과 지출의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둘째, 나아가 가문의 주요 구성원들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전략과 기획의 차원을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조정하며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초계 정씨 인간의 전체 자료 양상을 파악하는 작업에 이어 주요 필자인 밀양 변씨의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일상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향후 정씨 인간의 주요 인물들의 관계성, 인물 각각의 개인사 구명, 개별 인물의 접점과 각각의 간찰에 나타난 정보들의 재취합을 통한 가족사의 재구성 등의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 인간, 한글 간찰, 조선후기, 초계 정씨, 거창, 일상성, 일상 문화, 양반 여성, 종부, 경제, 가문 경영, 과거(科擧)

## 1. 서론

이 글은 19세기 후반 초계 정씨 가문의 한 일가족에 의해 쓰인 한글 간찰들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문화사적 의의와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주요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총 10권의 ‘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자료집 중 제10권 『의성 김씨 천전파·초계 정씨 한글 간찰』에 실려 있는 언간 자료 46건의 편지들이다.<sup>1)</sup>

한글 간찰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구체적인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기되지

1)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의성 김씨 천전파·초계 정씨 한글 간찰』, ‘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0권, 태학사, 2009. 여기에는 한글 간찰들의 ‘입력 원문’과 ‘전사(傳寫), 주석, 현대역’이 실려 있다. 이 간찰들의 원문은 영인본인 『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 영인본』 제4권, 태학사, 2009를 참고하여 대조하였다.

않아 인물간 관계를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자료들이 대개 낱날의 개별 자료들로 존재하고 있어 그것이 쓰여지고 왕래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 등을 파악해 내기가 어렵다. 내용이나 표현 면에서도 조선 후기 언간 자료들은 상대의 안부를 정중하게 묻는 한문식의 투식구를 중심으로 규식화, 정형화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실제 용건이나 구체적인 상황과 같은 자기 진술의 차원에 있어서는 상투적이고 간략화된 평면적인 표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글 간찰의 자료적 양상은 이 자료군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sup>2)</sup>

그러나 초계 정씨 가문의 언간 자료는 시기상으로 19세기 후반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일반적인 언간 자료와는 사뭇 다른 자료적 특

2) 조선 후기 한글 간찰에 대한 다음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 ‘언간 자료는 판독 오류 가능성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필사자의 필사 경향 등으로 인하여 판본 자료의 보조적 자료로 이용되는 일이 많았다. …… 이 언간(순흥 안씨 언간)은 22건 중 17편 가량이 지극히 의례적인 간단한 편지이고 5건 정도가 구체적인 사연이 드러나고 있다. …… 이 자료(광산 김씨 언간)는 대체로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친인척 간에 오고간 다수의 편지와 고목으로서 …… 아쉽게도 낱장으로 보관되어 오던 것으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간기가 누락되어 필사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편지들이 꽤 있다.’ 백낙천, 『조선 후기 한글 간찰의 형식과 내용』,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2006. 6. 161쪽, 164~166쪽; ‘한글 간찰에 나오는 정보들은 대부분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면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나 제도 등이 자세히 밝혀져 있어야 한다.’ 전경목, 『한글 편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9. 28~29쪽. 이외에도 조선 후기 한글 간찰의 투식구 사용과 정형화에 대한 연구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홍은진, 『방각본 언간독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1, 태학사, 1997; 김남경, 『언간독과 증보언간독 비교 연구』, 『민족문화논총』 24,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2001; 김은성, 『<규합한훤>을 통해 본 격식적 편지문화의 전통』, 『어문연구』 32권 1호, 2004; 김정경,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여성 한글 간찰의 특질 고찰』, 『정신문화연구』 34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홍인숙, 『조선시대 한글 간찰(언간)의 여성주의적 가치에 대한 재고찰 시론』, 『이화어문연구』 33, 2014. 8.

수성을 보인다. 조선후기 인간 자료로서 정씨 가문의 간찰은 그 공간적 배경이 경상남도 거창군 일대로 뚜렷이 밝혀져 있고, 시기적인 배경도 정현상(1827~1881)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1870~90년대의 20년 남짓이며, 필자와 수신자가 대개 정현상의 3대 6촌 이내로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 인간의 주요 필자들은 상투적인 편지투 표현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가문의 대소사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대응 등을 구체적이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후기 인간 자료군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자료적 선명성과 가치를 나타내며, 19세기 후반의 양반 가문의 일상과 문화의 한 단면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정씨 간찰의 전반적인 자료 양상을 개관하고 주요 필자와 등장 인물, 가족사적 기점 사건들에 대한 확인 가능한 정보들을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씨 간찰에서 대표적인 여성 필자인 ‘정현상’의 며느리이자 종부였던 ‘밀양 변씨’의 한글 간찰 10여 편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양반가의 일상 문화 속에서 여성이 가문의 전반적인 운영 면에서 수행했던 역할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초계 정씨 인간 자료군의 양상과 특징

이 장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초계 정씨 간찰 자료의 전체적인 양상을 소개하고, 주요 필자들의 서간이 쓰여진 선후 관계를 살펴 필자 및 작성 연대 순으로 자료의 배열을 재정리하고자 한다. 현재 현존 연 편 역주 자료집에 실려 있는 자료는 필자별 구분이나 작성 연대별 구분 없이, 소장자가 갖고 있던 고문서 자료군을 보존 순서 그대로 전사, 역주, 현대역한 것이다.

(1) 전체 자료의 개관

먼저 한중연 편 역주 자료집 10권 후반에 실려 있는 초계 정씨 간찰의 왕래 관계와 인물 정보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집에 있는 정씨 간찰은 두 종류의 일련번호를 갖고 있다. 자료를 수집, 보존한 마이크로필름의 번호인 ‘고문서 번호’와 역주 자료집에 실려 있는 ‘역주 번호’가 그것인데, 본고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자료집의 배열 순서인 ‘역주 번호’를 따르고자 한다.

표1. 한중연 편 역주 자료집 소재  
 ‘초계 정씨’ 간찰의 왕래 관계 및 인물 정보 오류 수정사항<sup>3)</sup>

역주 번호	고문서번호 草鄭 MF35_007999	왕래 관계	인물 정보	수정 사항
1	729	아내→남편	숙부인밀양변씨→남편정연갑	정기상 소설→정기상 *‘나으리’ 호칭, 필체가 밀양 변씨와 다름
2	731	딸→아버지	만딸 또는 둘째딸→정현상	둘째딸→정현상 *둘째딸 ‘상원’의 다른 편지와 필체 동일
3	733	아내→남편	처 밀양변씨→남편 정연갑	
4	734	동생→형	동생→형님	
5	735	어머니→아들	모 진성이씨→아들 정현상	

3) 표에서 오류 수정 및 필자 확정 작업이 필요한 간찰은 배경색으로 처리한 7건이다. 왕래 관계 및 인물 정보에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활용한 근거는 각 간찰 속에 사용되고 있는 호칭어, 언간 속에 언급되고 있는 주변 인물들의 인명, 영인본과 대조한 필체 비교 등이다. 정오 사항은 총 7건으로 1번, 10번, 20번, 37번은 간찰 내용과 영인본 필체를 참고하여 필자를 각각 바로잡았고, 2번, 9번, 45번은 ‘만딸(옹양태)’과 ‘둘째딸(상원)’ 중 필자를 확정할 수 없었던 것을 영인본의 필체 대조 과정을 통해 가려내 밝혔다.

6	736	윗사람→아랫사람	윗사람→아랫사람(미상)	
7	738	아내→남편	처 밀양변씨→남편 정연갑	
8	739	이만업→정현상	이만업→정현상	
9	740	딸→아버지	만딸 또는 둘째딸→정현상	만딸→부친 정현상 *만딸 '응양태'의 다른 편지와 필체 동일
10	741	머느리→시아버지	맹순 스님→윗사람	'머느리-시부' 아니라 '승려 맹순'이 맞음
11	742	머느리→시아버지	밀양변씨→시부 정현상	
12	747	조카딸→큰아버지	정현상 만딸→백부 정기상	
13	748	머느리→시아버지	밀양변씨→시부 정현상	
14	749	머느리→시아버지	밀양변씨→시부 정현상	
15	750	전씨과부→정진사	전씨 과부→정진사	
16	751	머느리→시아버지	둘째머느리는진임씨→ 시부정현상	
17	752	소실→정현상	소실 '수복 모'→정현상	
18	753	둘째딸→아버지	둘째딸→부친 정현상	
19	754	소실→정기상(현상)	홍해집 삼녀(소실)→정기상	
20	755	아내→남편	처 밀양변씨→남편 정현상	미상→남편(미상) *밀양변씨의 남편은 정연갑, 필체 다름
21	756	아랫사람→윗사람	아랫사람→윗사람	
22	758	아랫사람→윗사람	아랫사람(소실)→정연갑	
23	759	아버지,남편→ 아들,아내	아버지,남편→아들,아내	
24	764	어머니→아들	모 정선전씨→아들	
25	765	언니→동생	언니→동생	
26	767	시백부→질부	시백부 정기상→질부밀양변씨	
27	769	소실→형평서방님	소실→형평서방님	
28	770	아들→어머니	아들 정현상→모 진성이씨	
29	771	소실→마님	정기상소실→ 동서마님정선전씨	

30	772	소설→정기상	정기상 소설→정기상	
31	774	며느리→시아버지	밀양변씨→시부 정현상	
32	775	어머니→아들	모 진성이씨→아들 정현상	
33	776	아내→남편	처 밀양변씨→남편 정연갑	
34	777	며느리→시아버지	밀양변씨→시부 정현상	
35	778	숙모→조카	숙모은진임씨→조카정연갑	
36	780	어머니→아들	모 진성이씨→아들 정현상	
37	781	아내→남편	처 정선전씨→남편 정현상	처 밀양변씨→남편 정연갑 *밀양변씨의 필체 동일, '원업' 등 인명 언급
38	782	소설→정기상	정기상 소설→정기상	
39	783	최석근→정현상	최석근→정현상	
40	784	맏딸→아버지	맏딸→부 정현상	
41	786	소설→정내균	소설→생원 정내균	
42	787	안동택→아우	안동택→아우님(미상)	
43	788	며느리→시아버지	밀양변씨→시부 정현상	
44	789	돈헌→미상	돈헌→미상	
45	791	딸→아버지	딸→부 정현상	맏딸 웡양택→부 정현상
46	792	서선달집→미상	서선달집→미상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한중연 편 자료집 속의 정씨 가문 간찰은 필자나 작성 연대와는 무관하게, 원자료가 수집·보존되었던 순서대로 역주되어 실려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씨 간찰은 다른 가문의 언간 자료와는 달리 편지의 필자와 수신인이 거의 모두 집안 내부의 주요 구성원들로 좁혀져 있다. 즉 간찰의 왕래 범위 자체가 ‘정현상(1827~1881)’을 중심으로 한 일가족인 ‘며느리(밀양 변씨), 맏딸(웡양택), 둘째딸(상원), 모친(진성 이씨), 아내(정선 전씨), 누이(안동택), 형 정기상, 정기상의 소설’이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가족 외부의 인물이 간찰의 필자로 등장하는 경우는 10여 편 정도이다.<sup>4)</sup> 따라서 정씨 간찰 중에서

복수의 인간을 남긴 필자들의 작품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발수신자들의 관계도를 정리하는 것은 이들의 당대 일상 문화를 복원하고 가족사적 장면을 재구성하며 인물들의 구체적인 관계성의 양상을 재조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작업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우선 여러 편의 인간을 남긴 주요 필자들부터 인물 정보가 확인되는 가족 내 필자들의 간찰 상황 및 핵심 관계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2, 표3과 같다.

표2. 정씨 간찰 필자별 수신인, 작성 연대, 장문 간찰

간찰 필자	편수	수신인	간찰 번호	작성 연대 순	간찰 길이 (*400자 이상 장문 간찰 진한 글씨)
밀양 번씨 (정현상 며느리)	10편	남편 정연갑	<b>3, 7, 33,</b> <b>37</b> 번	3번→43번→31번 →14번→34번→ 13번→11번→ 33번→37번→7번	<b>3번 510자</b> (약18자×28행), <b>7번 820자</b> (약12자×68행), 11번 360자(약15자×24행), <b>13번 610자</b> (약18자×34행), <b>14번 1,050자</b> (약28자×37행), <b>31번 520자</b> (약14자×37행), <b>37번 920자</b> (약23자×40행), <b>33번 1,800자</b> (약17자×105행), <b>34번 2400자</b> (약20자×122행), <b>43번 740자</b> (약20자×37행)
		시부 정현상	<b>11, 13, 14,</b> <b>31, 34, 43</b> 번		
웅양댁 (정현상 큰딸)	5편	부친 정현상	9, <b>40, 45</b> 번	9번→12번→25번→ 40번→45번	9번 280자(약14자×20행), <b>12번 700자</b> (약12자×58행), <b>40번 450자</b> (약14자×32행), <b>45번 550자</b> (약14자×39행),
		백부 정기상	<b>12</b> 번		

- 4) 정기상의 소실 외에 다른 소실 추정 필자들의 간찰은 별도의 고찰을 요한다고 생각된다. 소실 추정 필자 인간은 17번(소실→정현상), 19번(홍해집 삼너→정기상), 22번(아랫사람, 소실 추정→윗사람), 27번(소실→형평 서방님), 41번(소실→생원 정대균)까지 5편이다. 기타 간찰은 6번(윗사람→아랫사람), 8번(이만업→정현상), 10번(승려 명순→윗사람), 15번(전씨 과부→정진사), 21번(아랫사람→윗사람), 23번(아버지, 남편→아들, 아내), 39번(최석근→정현상), 44번(돈헌→미상), 46번(서선달집→미상)으로 9편이다.

		동생 상원	25번		25번 364자(약14자×26행)
진성 이씨 (정현상 모친)	3편	아들 정현상	5, <b>32</b> , <b>36</b> 번	32번→36번→5번	<b>5번 450자</b> (약16자×28행), <b>32번 570자</b> (약12자×48행), <b>36번 450자</b> (약11자×41행)
상원댁 (정현상 둘째딸)	2편	부친 정현상	2, 18번	2번→18번	2번 270자(약10자×27행) 18번 230자(약10자×23행)
정선 전씨 (정현상 부인)	1편	아들 정연갑	24번		24번 208자(약13자×16행)
안동댁 (정현상 누이)	1편	동생 정현상	42번		<b>42번 960자</b> (약15자×64행)
은진 임씨 (정현상 제수)	1편	조카 정연갑	35번		<b>35번 504자</b> (약14자×36행)
은진 임씨 (정현상 며느리)	1편	시부 정현상	6번		16번 209자(약11자×19행)
정현상	1편	모친 진성이씨	28번		<b>28번 500자</b> (약15자×33행)
정기상	1편	질부 밀양변씨	26번		<b>26번 560자</b> (약20자×28행)
정기상 소실	4편	남편 정기상	1, 30, 38번	1, 38번 낙장, 연대 추정 어려움	<b>1번 1365자</b> (약13자×105행), 30번 375자(약15자×25행), 38번 182자(약13자×14행)
		동서마님 정선전씨	29번		29번 280자(약20자×14행)



인 편지들이 많다는 것이다. 최다 언간을 남긴 며느리 밀양 변씨는 1천 자 내외에서 최대 2400자에 이르는 장문의 간찰을 5편이나 썼으며, 정현상의 맏딸 웅양댁, 모친 진성 이씨 역시 500자가 넘는 긴 편지를 여러 편 남겼다. 대개 한글 간찰의 경우 400자를 긴 편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 가문의 여성들이 400~500자의 언간은 물론 600~1,000자, 혹은 2,000자가 넘는 장문의 언간을 주고받은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특이한 일이다.

둘째, 가족의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가족 내 필자들의 언간은 한두 편의 편지를 남겼더라도 그 내용 면에서 주요 가족 구성원들의 인명과 안부가 등장하고 가족사의 중요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서술의 맥락과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한마님, 큰한마님, 뒷댁’과 같은 집안 어른신들의 안부, 정현상의 세 딸인 ‘웅양, 상원, 권댁’의 왕래와 신행 일정 등은 가문 내 여러 간찰 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가족들의 기본 관심사였다. 이에 비해 가족의 경계 밖에 있는 소실 추정 필자들의 언간은 동일한 가족 내 인물을 언급해도 그 어조가 사뭇 다르고 가문의 핵심 인물이나 기점 사건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으며 때로는 아예 간찰의 서술 배경 자체가 다른 점이 눈에 띈다. 정씨 가문의 자료군에 있는 다섯 편의 소실 간찰 중 두 편은 생계의 어려움을 절박하게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점, 나머지 세 편의 필자인 ‘정기상 소실’의 언간에서도 가족사적 기점 사건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소실이 양반 가문의 정상적인 일상성 속에 편입되지 못한 하위주체적 존재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정씨 일가의 거의 모든 언간의 수신자이며 가문의 중심 인물인 ‘정현상’과 그의 형 ‘정기상’이 직접 쓴 한글 간찰도 각 1편씩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언간 자료가 왕래 관계에서의 한쪽 편에서만 자

료만 발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점은 정씨 간찰 자료군의 입체성을 더해주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인물 및 시기 집중성

초계 정씨 간찰 자료의 전반적인 개관에 이어 이 절에서는 본 자료군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자료 집중성의 차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 다른 가문의 소장 간찰 자료와 초계 정씨 간찰이 가장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인물’과 ‘작성 연대’의 두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집중성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정현상과 그의 며느리인 밀양 변씨를 필두로 모든 가족 내 필자들의 관계가 3대 6촌 안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간찰들이 왕래된 시점 역시 가족사의 일정한 한 시기 이내로 초점화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정씨 간찰에서 중요한 가족사적 배경이자 선후 관계를 짐작하게 해주는 핵심적 사건을 ‘기점 사건’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 시기는 대략 1870년대 초반부터 1880년대 후반까지의 15년 이내이다.

- 정씨 인간 내 가족사적 기점 사건

- ① 정현상의 진사 합격(1873, 45세)
- ② 정현상 처 정선 전씨 사망(1875, 49세)
- ③ 정현상 백모 장수 황씨 사망(1878, 83세)
- ④ 정현상 모친 진성 이씨 사망(1879, 82세)
- ⑤ 정현상 사망(1881, 54세)
- ⑥ 정현상 아들 정연갑 진사 합격(1885, 38세)

이 당시 가문의 중심 인물은 당연히 가문의 어른인 ‘정현상’이었다. 그러나 언간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의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보다 간찰의 필자이자 자녀 세대의 대표격인 정연갑-밀양 변씨 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용이하다. 정연갑-변씨 부부 기준으로 언간에 등장하는 조부 세대, 부친 세대, 자녀 세대의 주요 인물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연갑-밀양 변씨 부부를 기준으로 조부 대의 중심 인물은 정종필(1797~1821)-장수 황씨(1795~1878)와 정기필(1800~1859)-진성 이씨(1797~1879)의 형제 내외로, 언간 자료에서 언급되는 ‘큰한마님’은 장수 황씨, ‘한마님’은 진성 이씨이다. 주요 언간 필자인 손주며느리(밀양 변씨), 손녀(옹양댁, 상원), 아들(정기상, 정현상)에게 이 두 할머니의 건강과 안부 여부는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 사안이며, 이들의 상사(喪事)는 언간들의 작성 순서를 판별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정기필-진성 이씨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각각 정기상-현상인데, 이들의 백부이자 정기필의 형인 정종필이 24세로 사망했으므로 장자인 정기상은 정종필에게 출계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상-현상 형제의 모친인 진성 이씨가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차자(次子)인 정현상과 의논하는 것<sup>6)</sup>은 장자 정기상이 정종필의 뒤를 잇고 자신의 가계를 이은 것은 정현상이었기 때문이다.

밀양 변씨-정연갑 부부의 부친 대의 중심 인물은 정기상(1825~1886)-순천 박씨(1821~1870), 정현상(1827~1881)-정선 전씨(1826~1875)의 두 형제 내외이다. 정씨 간찰 대부분의 언간에서 ‘큰아바님, 백부님’으로 불리는 것은 정기상이며, ‘아바님’은 정현상을 가리킨다. 정기상-정현상

6) ‘한마님(할머니)’인 ‘진성 이씨’ 역시 세 편의 간찰을 남긴 주요 필자인데, 이 세 편이 모두 정현상에게 보낸 것이다. 장자인 정기상에게 남긴 언간이 원래 없는 것인지, 전해지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현상에게 보낸 언간에 가문의 대소사를 언급하면서 형인 정기상과 의논하라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진성 이씨는 가계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형제의 한양 행차, 과거 준비, 진사 시험, 도문(到門) 일정 등은 초계 정씨 간찰에서 모든 가문 구성원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정기상-현상 형제의 배우자인 순천 박씨와 정선 전씨는 둘 다 49세에 각각 1870년과 1875년 사망했는데 각자의 시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언급 역시 간찰들의 작성 시점을 파악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다. 정기상-정현상 형제의 셋째 동생 내외는 정규상(1832~1893)-영천 이씨(1830~1886)로 정규상은 모친 진성 이씨가 정현상에게 ‘동생도 급제할 수 있도록 힘 쓰라’고 거듭 당부한 인물이며, 자녀 세대의 인간에서 ‘진사 숙부님’으로 불리는 인물로 추정된다.<sup>7)</sup> 이들 형제의 세 명의 누이 중 인간을 남기고 있는 인물은 안동댁 한 명이다.

자녀 세대에서는 정현상의 맏아들 내외인 정연갑(1847~1907)-밀양 변씨(1844~1914)를 중심으로 정연갑의 두 형제 정연식(1851~1880)-은진 임씨(1849~1917), 정연우(1869~1951)-진양 강씨(1869~1946)와 세 여동생 내외인 웅양댁-이현원, 상원-이명균, 막내딸 의성-권인석이 있다. 세 딸은 각각 시가가 있는 거창 부근 지명인 ‘웅양’, ‘상원’, 경북 지방의 ‘의성’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들 중 웅양댁은 5편의 인간을, 상원은 2편의 인간을 쓴 주요 필자로, 이 딸들의 혼사와 신행 언급은 간찰들의 선후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준다.<sup>8)</sup> 정연갑의 동생 정연식은 29세로 일찍 세상을 떴는데 ‘경용, 조용’으로 불리는 인물로 생각되며, 막내 동생 정연우는 정

7) 이들 형제의 넷째 동생 ‘정진상(1835~1858)-은진 임씨(1828~1906)’ 내외는 정씨 인간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정진상이 23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처인 은진 임씨는 정기상-정현상 형제 일가와 가까운 곳에서 같이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녀 세대 인간에서 자주 안부를 묻는 대상으로 등장하는 ‘뒷댁 어머니’일 가능성이 있다.

8) 세 딸의 생애사 추정에서 조선후기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혼례 관습은 ‘반친영(半親迎)’이다. 반친영은 대례를 신부쪽에서 치른 후 몇 해 정도 친정에 살다가 시집으로 완전히 거처를 옮기는 ‘신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연갑과 나이 차가 22년으로 언간에서 ‘유아 애기’로 언급되는 인물로 보인다. 정연갑의 진사 합격(1885)은 정씨 간찰 자료에서 가장 뒤에 일어난 일이다.

### 3. 초계 정씨 언간을 통해 본 조선후기 생활 문화

#### - 가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여성

초계 정씨 간찰 자료군에서 단연 주목하게 되는 필자는 정현상의 며느리이자 정연갑의 부인인 ‘밀양 변씨(1844~1914)’이다. 변씨는 정씨 간찰 자료군에서 가장 많은 수인 10편의 언간을 남긴 필자로, 그 10편 중 6편은 800자 이상의 장문 간찰이며 그 중에서도 1,800자, 2,400여 자가 넘는 정도의 예외적으로 긴 분량의 간찰을 남긴 필자이기도 하다. 변씨의 한글 간찰은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언간과는 달리 의례적인 표현들을 거의 쓰지 않으면서 다양한 가문 구성원들의 삶의 정황, 양반 가문의 생활 문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맺었던 관계성 등을 치밀한 필치로 보여주는 매우 주목할 만한 텍스트이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밀양 변씨 간찰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도 가문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양반 여성으로서의 변씨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려 한다.

밀양 변씨는 거창에 있는 정씨 가문의 본가에 살면서, 당시 한양에 가 있던 시부 정현상, 남편 정연갑과 주로 편지를 왕래했다. 당시 과거에 뜻을 두고 있었던 지방의 다른 양반 가문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진사 과거 응시를 위한 학업 준비, 참봉 등 이미 맡고 있는 하급 직무의 수행, 서울 양반들과의 교류와 같은 이유로 서울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기적으로 머물곤 했기 때문이다. 고향의 세거지인 거창과 한양 사이는 수십 일

이 걸리는 먼 거리였지만 이들은 대개 양쪽에서 일정 기간씩을 머물며 오가는 생활을 지속했고, 따라서 본가의 입장에서 가문의 남성들이 부재하는 상황은 단기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상황이었다. 변씨 부인이 시부의 진사 급제 소식을 받고 ‘삼십년 객고(客苦)에 포원과명(抱願科名)’을 이루었다고 말하며 기뻐하는가 하면(31번 간찰), 남편에게 ‘사십 평생에 각리(各離)가 반치가 넘는다’고 한 표현(33번 간찰)들은 지방의 양반가 남성들이 본가를 떠나 서울에 장기간 머무는 것이 상례였음을 보여준다.<sup>9)</sup>

문제는 이렇게 가부장이 부재하는 상태에서 일가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여성의 몫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다. 변씨의

9) 이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3년 마다의 정기적인 과거 시험보다 각종 명목으로 개설되는 비정기적인 특별시의 시행이 잦아지면서 서울에 머물러 있어야만 과거에 응시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었으며 연망(聯網)과 인맥으로 형성되는 서울 양반들과의 교류가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서울의 선비와 양반층을 가리키는 ‘경유’에게 조선 후기 급격히 늘어난 비정기시로 인해 과거 응시의 기회와 혜택이 훨씬 많았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92년부터 1894년까지 303년간 식년시에서 100회에 걸쳐 3,300명이 뽑혔다고 추정한다면 비정기시는 447회에 7,160명의 합격자를 냈으리라 추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비정기시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준다. 그런데 비정기시는 증광시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예고없이 개설되어 초시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당일로 하루 만에 시험을 보아 합격자를 내기도 했다. 이 경우 지방의 유생 즉 향유에게 사실상 응시의 기회를 박탈하고 중앙 양반지배층 자체 즉 경유(京儒)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안겨주었다.’ 민현구, 앞의 논문, 179쪽. 숙종 대의 문신인 이동표(1644~1700)의 간찰을 통해 조선시대 과거제를 연구한 논문에서는 가문의 배경과 연망, 인맥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편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승지 아주버님이 창방일에 그를 직접 데리고 궁궐에 들어가고 재상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여 소개하였으며 시골에서 열리는 조카의 도문연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 비록 당당히 과거에 급제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관리로 성장하는 데에는 연망, 즉 인맥의 형성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서울의 고위 관리나 지방에 파견된 선임 관리들의 도움이나 후원이 없다면 후임자의 관리 생활은 순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목, 앞의 논문, 52쪽.

간찰은 가장의 부재 상황이 간헐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문의 구성원들의 안위를 살피고 의식주를 돌보며 대가족의 경조사를 아우르는 가문의 전반적인 운영 및 조정의 책임을 양반 여성들이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이 장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밀양 변씨 간찰에 나타난 양반 가문의 생활 문화의 다양한 측면 중에서 ‘경제적 운영’과 ‘과거(科擧)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여성이 ‘가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경제적 관리와 운영의 중추

밀양 변씨의 간찰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장면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이다. 시조모로부터 자신의 자식과 조카 대에 이르는 대가족은 물론, 인근에 사는 인척들을 두루 보살펴야 하는 양반가 종부의 위치에서 경제적인 문제와 의식주는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살림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18세기 양반가 여성들이 실제 방적과 농사, 추수 관리 등의 노동에 기반해 가문의 경제 활동과 치산(治産)의 주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sup>10)</sup> 변씨 부인의 간찰은 이러한 가문 경제에서의 양반 여

10) ‘흔히 양반 여성은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이나 경제활동과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상층 양반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반 여성들은 집안일은 물론이고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했다.’, 김경미, 『가(家)와 여성- 18세기 여성 생활과 문화』, 도서출판 여이연, 2012. 263쪽; 이 책에서는 유언호의 부인 여흥 민씨(1729~1786)가 옷감이나 곡식, 돈이나 말을 빌려서 살았던 일, 겨울옷을 준비하면서 숨 몇 근을 장만하기 위해 십여 냥 돈을 써도 되는지 의논했던 일, 신경의 부인 파평 윤씨(1693~1749)가 자녀 혼례에 필요한 물품과 남편의 뒷바라지 물품을 방적을 통해 마련한 일, 연암 박지원의 형수였던 공인 이씨가 가난한 살림으로 좌절하고 속을 썩이며 골수가 빠질 정도로 살림을 꾸렸던 일 등 양반 여성들의 경제 생활과 관련한 한문 산문의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정후일의 부인 전주 유씨(1705~1775)의 행장 및 묘지명 기록에 나타난 유씨의 재산 관리 능력은 밀양 변씨의 사례와 비슷하다. 유씨

성의 역할이 결정권을 가진 가장을 돕는 정도의 부차적인 수준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리자의 역할, 나아가 ‘가문 전반의 경제적 운영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① 응관이에게 누룩 값 받았고 임자가 두고 간 것인 과채(果菜, 瓜菜)와 강대 목 나락 한 섬은 즉시 주었습니다. …… 필문 놨은 누룩 값 안 주고 밀 도조(賭租) 괴상하게 감하니 심화가 매우 납니다. 시계(인명 추정)는 큰집의 해(害)가 가볍지 않아 쌀 한 되 살 수 없으니 심화 나고, 삼백(냥) 이자에 대한 말은 이날까지 이러타 할 말이 없으니 꽤씸합니다. 달성 어미는 맞아서 병이 나 드러누웠는데 만니를 보내 돈 가져오라 했더니 우리 듯집 돼지 쳐서 백 냥짜리 말 차지 하였으면 그만이지 이제 무슨 돈이나 하더라니 꽤씸하고 분하여 곧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싶으나 병 무서워 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만 가지 세세한 일은 내가 알아 처치할 것이니 부디 집 못 잊어 하지 마십시오. …… 도지(賭地)마다 밀 석 섬을 이뤘 뺏았는데 올해는 밀이 들어오는 것마다 상하고 짝이 나서 가루가 험하니, 그 린은 봄이 상이고(미상) 막집이나 떠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리 석 섬 해놓은 것을 안 헐려고 했으나 열 되 팔아먹고 이자 말았으니 그대로 견디겠습니까.<sup>11)</sup>

부인은 밭과 집, 종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종들에게 각각 할 일을 주어 밭 갈고 길쌈을 하게 하며 자신도 직접 일을 하며 감독했다고 한다. 또 1년 농사가 끝나면 수확을 계산해 골고루 나눠주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환곡을 갚았다는 것이다. 같은 책, 48~58쪽, 262~272쪽. 이 연구는 양반 남성의 생애사 서술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경제 활동 양상이 양반 여성의 생애 서술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주, 자세하게 드러나며 그 양상이 매우 구체적인 여성들의 노동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11) 응관이에게 누룩 값 받았고 남지 두고 간 것 과채(果菜, 瓜菜)와 강대목 나락 한 섬과 즉시 주었습 …… 필문 놨은 누룩 값도 아니 주고 밀 도조(賭租) 괴상이 감(減)하니 심화심화(心火) 시계는 큰집 힘 비경비경(非輕) 쫓 혼 되 술 슈 업스니 심화(心火) 나고 삼백 니(利) 말은 이날까지 이러타 할 말 없스니 꽤심 꽤심 달성 어미는 마즈 병 드러누온디 만니를 보내 돈 가져오라 하니 우리 듯집 돈의 쳐 빅 양즈리 말 츠지혀시면 그만 이제 무슨 돈이야 하더라니 꽤심코 분하여 곳 불너다가 야단을 치고져우나 병 무서워 춤고 잇시나 오만 세스(細事)는 니 아라 처치(處置)할 거시니 부디 집 못 니

위 예문①은 남편인 정연갑에게 보낸 언간으로, 이 편지는 가문의 경제에서 수입을 이루는 다양한 항목들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것은 ‘누룩 값’, ‘과치(果菜, 瓜菜)와 강디목 나락’의 값, ‘밀 도조(賭租)’, ‘니(利)’와 같은 것들로, 내다 팔았던 누룩 값, 밀과 보리 및 각종 발작물과 나락의 수확, 그리고 도조 즉 논밭을 빌려서 부친 소작인들이 대가로 내는 곡식, 사람들이 빌려간 돈의 이자<sup>12)</sup> 등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정씨 가문의 경제적 수입원이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예문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수입들이 원활하게 수령되는 경우보다 항상 현실적인 관계에서 오는 마찰과 갈등을 감내하면서 조정을 해야 할

---

저 말고 …… 도지(賭地)마다 밀 석 섬을 이러 싸슈니 올 밀 드러오는 것마다 상하고  
 싹시 나 가로 기구(崎嶇)하니 그린은 봄이 상이고 막접이나 씨먹을 밧 없습 보리 석  
 섬하여 노흔 걸 아니 헐나 하니 열 되 파라 먹고 이즈 말으시니 그더로 견덜가 (33번,  
 555~557쪽)

- 12)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약간 있는 상층 양반가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일 역시 조선후기 양반 가문의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한 영역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덕무는 돈놀이하는 부인의 할 일이 아니니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이자를 취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고 했다. 이는 당시 관직에 나가지 못한 선비의 아내들이 이러한 일로 살림을 꾸렸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김정미, 앞의 책, 268쪽. ; 이덕무의 <사소절> ‘부의’ 편 ‘사물(事物)’에서 이자를 취하는 일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돈놀이 하는 것은 어진 부인의 할 일은 아니다. 적은 돈을 주고 많은 이자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만약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갚지 못하면 가혹하게 찾아내고 서로 나쁜 말을 더하며 증으로 하여금 소송하게 하여 관부 기록에 일이 기록된다. 채무자는 집과 밭을 팔고 재산이 기울어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원근에 퍼지게 된다.(生殖子母錢, 尤非賢婦人之事也. 非惟少與錢多取息之爲不義. 若或失期不還, 則督索煩苛, 惡言相加, 甚至使婢訟訴, 事載官牒. 負債之人, 賣家賣錢傾產, 乃已愁怨之聲, 播于遠近), 李德懋, <士小節>, 婦儀 卷七 事物,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참조 ; 변씨 간찰에서도 이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순형이 돈 바들 한정(限定)이 이 달 이터니 덩도사 저 돈 일에 좁혀시니 돈 바기에 방히(妨害)가 무궁(無窮)홀 거시니 궁한 즉의 폐(弊)를 심각하여 덩도사가 조금 습웃다가 셋달 초상에 바드면 상용(商用)이 된다 누누 스정(事情)하니 팔세홀 슈 업시나 넘지 엇지 알고 걱정되옵, 3번 편지, 407쪽.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이다.

이 예문에서도 하인으로 짐작되는 ‘응관’은 누룩값을 받아왔지만, 마을 사람으로 여겨지는 ‘필문’이라는 인물은 내야 할 누룩값을 내지 않으면서 밀 수확 후 내야 하는 ‘도조’까지도 자기 멋대로 ‘괴상히 감하여’ 적게 냈다. 인명으로 추정되는 ‘시계’는 ‘삼빅 니(利)’, 삼백 냥의 이자에 대해 말이 없다고 하고, ‘달성 어미’라는 인물 역시 내야 할 이자를 ‘빅 양즈리 말’ 주었으니 그만이라며 주지 않았으며, 도조로 들어온 밀은 다 ‘상하고 싹이 나서 막잡’이나 겨우 해먹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변씨 부인은 ‘심화 나고 괴썸하며’ ‘불러 야단치고 싶지만 참고’ 있다면서, 이 모든 ‘오만가지 세사(細事)’들은 자신이 다 ‘알아서 처치’할 것이니 남편에게는 서울에서의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다.

② 시절은 풍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추수는 낮지 않고 곡식 값이 너무 낮으니 절로 극히 귀하다 하니 수족을 매어 놓은 듯 애가 터집니다.<sup>13)</sup>

③ 소위 살림은 설마 굶겠습니까마는 허다 심려가 귀찮습니다. 양식은 열댓 섬 남았으나 하루 쓸 것도 비었고 길쌈 짓기, 곡식에 돈 괴상히 들었습니다. 무명 벼는 두 군데다 내냈고 서말 삼베는 내왔으나 애기네 삼베 주던 데는 어머니 안 계신 연고로 잃었으니 세상 인심 믿을 곳 없습니다.<sup>14)</sup>

위 ②,③번의 예문 역시 변씨 부인이 거창의 본가에서 가문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관리하면서 이를 서울에 있는 시부, 남편과 보고하기도 하고

13) 시절(時節)은 등풍(登豐)이라 호오나 추슈(秋收)는 낮조코 곡가(穀價) 너모 지천(至賤)호오니 절로 극귀(極貴) 수족(手足)을 밧트 익 터지읍 (11번, 442쪽)

14) 소위 슬림은 열마 굶스올가마는 허다 심려(心慮) 귀촌호읍고 양식(糧食)은 열댓 섬 나마스오나 일용(日用)도 허무(虛無)호고 길쌈 조호기 곡석 돈 괴상 들고 무명벼 두 군데다 나하왓습 서마리 삼베는 나하왓시나 익기니 삼 준 디는 어머니 아니 계신 연고로 일호니 세상 인심 미들 곳 업습 (14번 편지, 463~464쪽)

의논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부에게 보낸 간찰인 예문 ②에서는 ‘시절은 등풍(登豐)’, 즉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오히려 실제 추수는 별로 ‘낮지 않고’, 곡식 값만 너무 싸서 오히려 답답하다며 작황과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남편에게 보낸 편지인 ③에서는 ‘양식은 열닷 섬’ 남았으니 굶진 앓을 것 같다 하면서도 ‘곡식 돈 괴상 든다면서 비용의 문제를 걱정하고, ‘무명뽕, 삼뽕’을 짜기 위한 삼(麻, 大麻)의 수확 소식을 전하면서 ‘애기네 삼(麻)’ 준 곳은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거래를 잃었다면서 ‘세상 인심 믿을 곳 없’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문들은 가을에 수확한 추수의 양과 내다 팔게 되는 곡식의 가격, 무명과 삼뽕을 만들기 위한 삼의 구입처 등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변씨 부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던 일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추수 후의 곡가가 떨어진 상황을 시부에게 알리면서 그 일로 인해 ‘수족을 묶은 듯’이 답답해하고 ‘애가 터진다’고 할 정도로 근심하는 모습은 가문의 일 년 살림을 계획하고 책임져야 하는 중부의 위치에서의 심적 부담을 보여준다.

④ 이 집 살림은 상불급하불급(上不及下不及)이라 부자라 해도 샷되고 가난하다 해도 샷됩니다. 내빈외부(內貧外富), 상봉하솔(上奉下率) 걱정 많은 이 살림을 멀리 계셔서 떨어져 있는 자애로 만만 가지 생각 못 잊어 하심도 그와 같겠습니다. (그러나) 마새를 지어 우애 없음을 책망하시면 그것은 부모의 자애가 일체 아니옵고 따로 멀리 계셔서 심려하시는 것도 죄송스러우니 오시는 날 처단대로 하시옵소서.<sup>15)</sup>

15) 이 집 살림은 상불급하불급(上不及下不及)이라 부자(富者)라 하여 스(邪)될가 가난타 하여 스(邪)될가 내빈외부(內貧外富) 상봉하솔(上奉下率) 걱정 만흔 이 살림을 멀리 계오신 췌친 즈이(慈愛) 만(萬) 생각 못 이져 하심도 여스(如斯)시나 듯느니 마시를 지어 우이(友愛) 업스물 칙망(責望)하면 그는 부모 즈이(慈愛) 일체 아니오

⑤ 어린 시동생, 늙으신 중후 분, 홀아버로 홀로 계신 아버님의 의식(衣食) 간에 갖가지 조심과 걱정, 생각이 괴롭게 마음에 걸립니다만 밤낮으로 잠 못 이루고 걱정이웁더니 차차 겪어 지내보니 일 마다 제가 하는 일이 금의야행(錦衣夜行)이라 섭섭하고 설운 제 소회 부녀의 직분으로 시집에서 아버님을 모시며 여자는 지아버를 따른다는 제 소임을 면하고자 면할 수 있겠습니까.<sup>16)</sup>

⑥ 집이 가난하면 현처(賢妻)를 생각한다고 하나 봉제사 접빈객도 집집마다 살림 유무에 따른다고 했으니 세(勢)대로 하는 것이고, 세를 짐작하여 일을 마치는 것도 중한 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전박토라도 아무 대에서 줄어들면 선세 조상에게 제사 올림이 구차함이 자심하오며 그것이 죄일 듯하여 절용(節用)했으나 구차함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호의호식하고 편하고 넉넉함은 사람 들마다 소원이겠으나 제가 앞날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죄이겠습니까.<sup>17)</sup>

밀양 변씨가 남긴 간찰 중에서 가장 긴 장문의 편지인 34번 편지는 종이 길이가 130cm, 행수가 122행에 이르는데, 이 편지는 노비를 부리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호소하면서<sup>18)</sup> 집안 살림 일체에 대한 어려움을 시부

---

니 외오 게셔 심여(心慮)도 죄롭스오니 오시는 날 처단(處斷)더로 후습소서 (34번, 572쪽.)

16) 어린 시동생 늙으신 중후분 환거독노(鰥居獨老) 거양 의식(衣食) 간의 식식조심과 걱정혜엄이 산고회심(酸苦懷心)이라 일야(日夜) 접 목전(目前)은 오미경경(寤寐耿耿)이올너니 츠츠 격거 지니 보오니 스스(事事)의 니 일이 금의야행(錦衣夜行)이라 섭섭고 설운 제 소회(所懷) 부녀직분(婦女職分) 시집 호부(呼父)간의 예필종부(女必從夫) 제 소임(所任)을 면하고자 면후올가 (34번 편지, 575쪽)

17) 가빈(家貧)의 사현처(思賢妻)라 봉제사접빈객(奉제사接賓客)도 칭가유무(稱家有無)라 후엿스오니 세(勢)더로 후는 거시웁고 세(勢)를 짐작하여 졸역(卒役)후는 것도 소동(所重, 아들)을 심각후오미라 비전박토(菲田薄土)라도 아모 디(代)가 쥬러 지면 선세조상(先世祖上) 향화(香火)의 구츠(苟且)후미 즈심(滋甚)후오며 그거시 절덜후와 절용(節用) 구츠후미 뉘가 조하후올고 호의호식(好衣好食)후고 편후고 넉넉후문 인인(人人)의 소원이웁것만 니 장(將)을 심각후는 거시 무슨 죄오릿가 (34번, 572~573쪽)

18) 이 34번 간찰에서의 핵심 내용인 노비 문제로 인한 갈등 상황은 손주며느리인 변씨

인 정현상에게 원망 섞인 어조로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④에서 변씨는 시가인 정씨 일문의 형편을 ‘상불급하불급(上不及下不及)’, ‘내빈외부(內貧外富) 상봉하술(上奉下率)’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지만, 부자라 할 수도 가난하다 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형편에 위아래로 봉양할 어른과 다스릴 식구들이 많아 ‘걱정 만흔 살남’이라는 것이다. ⑤에서는 ‘의식(衣食) 간의 식식조심 걱정 혜엄’이 늘 마음 속에 근심으로 쌓여 잠을 못 이룰 정도임에도 자신의 노력이 드러나지 않음을 ‘일마다 금의야행(錦衣夜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⑥은 사정이 어려울 때는 ‘세(勢)’대로 하는 것이며 ‘중한 바(소동, 所重)’을 생각하여 형편을 꾸러가야 한다는 뜻을 전하면서 ‘절용(節用)’과 ‘장래’를 생각해야 함을 시부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다.

변씨 부인의 이러한 간찰 내용에서 일관되게 읽어볼 수 있는 것은 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의(衣)와 식(食)의 일상, 그리고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제 생활의 무게이다. 그의 편지에는 추수한 곡식의 출납, 수확된 밀, 보리, 삼 등의 작물의 질과 매매 관리, 도조와 누룩값과 같은 수입원들의 조정, 거래처와의 문제, 빚 문제와 이자 등 돈과 직결되는 가문의 경제적인 측면이 매우 자주 언급된다. 이러한 경제적 관리의 영역은 단순한 처리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상황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집안 전체의 경제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었다.

결국 변씨 부인이 멀리 있는 시부, 혹은 남편에게 보고와 의논을 겸하는 긴 간찰을 통해 자신의 심적 부담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은 그만큼

---

와 시할머니 진성 이씨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씨 집안 여성들의 관계성과 가족사의 재구성을 다루는 다음 연구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그러한 사안에 대해 그가 가문 전반의 경제 운영에 대한 관리자로서 큰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밀양 변씨의 간찰은 지방의 양반 가문 여성이 그들의 남편 등 가장이 과거와 환로 준비로 인해 부재할 때 경제적인 운영 및 관리의 책임을 맡은 핵심적 증추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과거(科擧) 전략과 기획의 지원

조선후기 양반 가문에서 과거에 지원하고 급제자를 내 환로 진출을 이어나가는 것은 가문의 명운과 성쇠를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었다. 특히 지방에서 보는 1차 시험인 향시(鄕試)를 거쳐 한양에 올라와 예조에서 치르는 2차 시험인 복시(覆試)를 통과해 진사(進士) 급제를 하는 것은 양반 가문으로서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이었다.<sup>19)</sup> 초계 정씨 가문에서는 정현상 당대에 그 자신을 포함하여 ‘정기상-현상-규상’의 삼 형제와 정현상의 맏아들이자 변씨의 남편인 정연갑이 모

19) 조선후기 양반 사회에서 생원진사시 합격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후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었다. 생원과 진사 자격으로 관직을 얻기는 어려웠다. …… 그러나 생원과 진사만 되어도 면역 특권이 주어져 사회적으로 일정한 대우는 받을 수 있었다.’, 이남희, 『과거 제도, 그 빛과 그늘』, 『오늘의 동양사상』 18,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8.4, 125쪽; ‘문과의 예비시험이 소과(생원·진사시)로 자리잡아 그 합격자가 백패(白牌)를 받고 생원, 진사로서 독자적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조선 양반 지배층을 두텁게 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선 시기를 통해 모두 47,000명 가량의 생원, 진사가 배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문과에 합격해 관직에 진출한 사람은 15퍼센트 정도이고 …… 나머지는 생원, 진사의 자격만으로도 여러 가지 특권을 보장받고 사회적 존경을 받았다. 그리하여 60,70세가 되도록 수십 년간 과거에 매달렸다가 생원, 진사가 되는 소성(小成)에 만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이는 과거가 관리 선발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생원·진사라는 국가적 학위를 공인해주는 구실도 담당했음을 뜻한다.’, 민현구, 『과거제는 한국사에 어떤 유산을 남겼나』, 『한국사 시민강좌』 46, 일조각, 2010.2. 176쪽.

두 진사로 과거 급제를 했다.<sup>20)</sup> 조선후기로 갈수록 경학을 중심으로 했던 생원 급제보다 제술 및 사장 능력을 시험하는 진사로 급제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더 선호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인식했으며<sup>21)</sup>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진사시에 응시하는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는 기록<sup>22)</sup>을 참고해볼 때 이 시기에 2대에 걸쳐 진사 급제자가 4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들이 당대에 지역에서 제법 성세를 이어가는 가문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는 역으로 정씨 가문이 과거 급제자를 내기 위해 그 시기 지방의 양반 가문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정씨 언간 자료군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언급, 그 결과에 대한 위로와 축하의 언급이 들어있는 간찰들이 여러 편 존재하는 것<sup>23)</sup>은 그만큼 가문 구성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이 과거라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장은 그 중에서도 시아버지와 남

20) 정기상(1825~1886)은 1865년 40세, 정현상(1827~1881)은 1873년 45세, 정규상(1832~1893)은 1882년 50세의 나이에 급제했다. 정현상의 아들 정연갑(1847~1907)은 1885년 38세에 급제했다.

21) '19세기에 오면 전반적으로 생원보다 진사를 더 선호하는 것이 사회적인 풍조였다. 그리하여 생원도 진사라고 가정하여 행세하였다. 실제로 생원으로 입격해도 진사로 부르기까지 했다.', 최진옥, 『생원 진사시와 서울의 과거 풍속』, 『향토서울』 67, 2006.2, 106쪽.

22)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소과 초시의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 1861년 2월 경상좌도에 서 시행된 소과 초시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진사시의 경쟁률이 262:1, 생원시의 경쟁률이 176:1을 넘는다. ……1891년 8월 경상도에서 시행된 식년시 대소과 초시의 과정을 보면 문과 10:1, 진사시 403:1, 생원시 325:1이었다. 경상좌우도를 합쳐서 문과 응시자는 몇백 명에 불과했던 데 비해서 소과는 대강 4만 명 정도의 응시자가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김경용, 『조선 후기 京·鄕 유생의 생원·진사 진출실태 비교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40권 제4호, 2018.12. 58~59쪽.

23) 과거를 주요 소재로 하고 있는 간찰은 43번, 31번, 13번, 33번, 37번(밀양 변씨), 32번, 36번(진성 이씨), 35번(정연갑 숙모 은진 임씨), 42번(정현상 누이 안동댁), 29번(정기상 소실), 17번(정현상 소실 추정)으로 11편에 이른다.

편과 더불어 과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반가 여성이 ‘과거의 전략과 기획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밀양 변씨의 간찰을 살펴보고자 한다.

⑦ 설우한풍(雪雨寒風)에 어찌 입성하셨습니까. …… 근래에 들으니 과거일이 멀지 않다 하오니 집안 여러 자제분 내(內) 각처로 나뉘어 볼 것이며 불가불 밖에서는 아버지 하고대로 대구에 가 볼 것이니 부디부디 감사(監司)께 간히 서찰을 얻어 부치시고 좌우로 단단히 설역하시어 부디 유념해 주시옵소서. 향시(鄉試) 바빠 치룬 후에는 경시(京試, 소과) 치송할 터이니 신년에는 대운을 축원하여 가장 공명현달하여 일국의 대명(大名)과 일문의 대경(大慶)이 있을 것을 아무쪼록 믿사옵니다. 아버지 여러 해 경성의 명문 가문에 출입하시며 현인 군자와 영웅재사를 많이 아실 것이니 장차 공명(功名)에 유익이 무궁하심을 바라고 믿사옵은 아버지 뿐입니다. 길몽을 얻었으니 실로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 원래 편에 자세히 기별하시면 좌도(左道)에 과거길에 흥하는 마음이 있을 듯하옵니다.<sup>24)</sup>

위 ⑦번 예문은 새해 초에 서울에 올라간 시부 정현상이 잘 도착했는지

24) 설우한풍(雪雨寒風)의 엇지 입성(入城)하시잇가 …… 향니(向來)에 듯즈오니 과일(科日)이 불원(不遠)타 호오니 집안 더되분니 각처(各處)로 난니여 불거시니 불가불(不可不) 뵈기셔는 아버지 하고대로 더구(大邱) 가 불거시니 부디부디 감사(監司)께 간찰(緊札)을 어더 부치시고 좌우(左右)로 단단니 설역하시와 부디 유념(留念)하옵소서 향시(鄉試) 불불 치룬 후 경시(京試) 치송(致送)홀 거시오니 신년(新年)의는 더운(大運)을 축원(祝願)호여 가장 공명현달(功名顯達)호와 일국(一國)의 더명(大名)과 일문(一門)의 더경(大慶)을 아모조록 믿스오니 아버지 히포 경성명문(京城名門)의 출입(出入)하시며 현인군자(賢人君子)와 영웅지사(英雄才子)를 만히 아르시 거시니 장차 공명(功名)의 유익(有益)이 무궁(無窮)호심을 버리고 믿스옵은 아버지 뿐니라 길몽(吉夢)을 어더 실니덕을(실노 덕을) 버리오이다 …… 니왕(來往) 편의 지시 기별(奇別)하시면 좌도(左道) 과횡(科行)니 흥심(興心) 잇실 덧호오이다 (13번, 453~455쪽)

안부를 물으며 그 해에 있을 과거 시험에 대한 대책과 방법을 의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언간은 1877년에서 1879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sup>25)</sup>, 여기서 변씨는 시부에게 ‘과일(科日)’이 멀지 않으니 ‘집안 여러 자제들이 각처로 나뉘어’ 과거를 치를 것이며 정연갑은 ‘아바님 하교대로 대구에 가 볼 것’임을 전하고 있다. 당시 정씨 안에는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여럿이었는데, 실제로 정현상의 아우인 정규상(1832~1893), 정현상의 맏아들인 정연갑(1847~1907)은 각각 1882년과 1885년에 3년의 간격을 두고 진사 급제를 했다. 이렇게 한 집안에 같은 시기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여럿인 상황에서 이 언간은 적어도 한 가문 친인척이 같은 지역에서 시험을 보지 않도록 가문 차원에서의 의논과 조정이 있었으며<sup>26)</sup>,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 변씨와 같은 양반 여성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돕는 역할을 수반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 예문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변씨가 시부에게 당부의 어조를 담아 ‘감사께 긴찰을 어더 부치실 것’, ‘좌우로 단단니 설역하실 것’을 ‘유님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부가 자주 ‘출입하며 만히 아르실’ 관계들, ‘경성명문의 현인군자와 영웅지사들’에 대해 ‘밋사움’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시부 정현상이 서울과 지방에서 맺었을 유력한 관계자들에 대한 모종의 부탁을 의미한다. 이는

25) 시기 추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둘째 딸인 ‘상원’이 신행을 한 이후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가시는 길 두 곳 따님 다 보시니 다행’이라는 구절이다. 상원택이 대례 후 친정인 정씨 일문에 머물다가 시가인 상원으로 떠나는 신행 일정과 배행할 인원을 의논하는 편지가 바로 직전 편지인 1876년 쓰인 34번 간찰이다.

26) 선행 연구에서도 부자간에 같이 과거에 응시하게 되었을 때 서로 다른 시소(試所)를 택했던 사례를 볼 수 있다. 18세기 중반의 문인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은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자신은 좌도에서 부친은 우도에서 과거에 응시했던 일을 자신의 일기 기록에 남겼다고 한다. 전경목, 『조선후기 지방유생들의 修學과 과거 응시』,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급제의 당락에 관여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 순탄하고 원만한 환로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탁, 관리 생활에 필요한 연망(聯網)을 부탁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sup>27)</sup> 이러한 표현들은 과거에 급제를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 어떤 직책과 직무로 임명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과 지방의 유력 관료들과의 연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변씨가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당부를 미리 시부에게 해둘 정도로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⑧ 오교리(吳校理) 댁에도 평안하신지 진작 가 뵈었는지 반기시던지 (궁금합니다.) 은혜는 난망지은이니 어찌 다 갑겠습니까. 오는 대사(大事)에도 부디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바라옵니다. 재상분네나 영남 유객(留客) 친구들이라도 신근하고 점잖은 이를 가려 친하시고 부디 처행하기를 조심조심하여 여러박빙(如履薄氷)같이 하고 마음을 철한(鐵漢)같이 돈독하게 하십시오. …… 오교리 댁 자주 가 뵈고 상의상의하시기 바랍니다.<sup>28)</sup>

⑨ 신상 보증하시고 재상 친구나 영남 친구나 다 대접하십시오. …… 임자를 공로상에 올리는 재상들 은혜를 무엇으로 갑겠습니까. 난망난망입니다.<sup>29)</sup>

27) '조선시대에 비록 당당히 과거에 급제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관리로 성장하는 데에는 연망, 즉 인맥의 형성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서울의 고위 관리나 지방에 파견된 선임관리들의 도움이나 후원이 없다면 후임자의 관리 생활은 순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목, 『한글편지를 통해 본 조선 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정신문화연구』 34권 3호, 2011.9. 한국학중앙연구원, 52쪽.

28) 오교리(吳校理) 댁에도 평안(平安) 진즉 가 뵈와시며 반기시던가 은혜(恩惠)는 난망지은(難忘之恩)이라 어찌 다 갑스오며 오는 디스(大事)도 부디 합력(合力)히여 주실가 브리옵 지상(宰相)분네나 영남(嶺南) 유객(留客) 친구들이라도 신근(愼謹)히고 점잔흔 니를 갈여 친히시고 부디 처행(處行)히기를 조심조심히여 여러박빙(如履薄氷)갓치 히고 마음을 철한(鐵漢)갓치 돈독(敦篤)히시옵 …… 오교리댁 즈로 가 뵈옵고 상의상의(相議)히시옵 (33번, 553~559쪽)

과거 시험과 이후의 환로 및 주변 관계에 대한 변씨 부인의 이해와 관심, 관여와 지원의 정도는 남편인 정연갑에게 보낸 간찰인 ⑧번과 ⑨번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⑧번 예문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간 남편이 잘 도착했는지 안부를 물으며 쓴 편지인데, 여기서 변씨는 ‘오교리덕’을 특정하면서 그 덕에 ‘난망지은’의 은혜가 있으니 반드시 방문하라고 신신 당부한다. 또 그는 ‘오는 디스(大事)’, 즉 다가오는 과거 시험에서도 오교리 덕이 ‘합력(合力)’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하기도 하고, 그 덕에 ‘즈로 가 뵈옵고’ 여러 가지를 ‘상의상의(相議)’해야 한다고 남편에게 거듭 말하기도 한다. 그는 남편이 ‘인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하고 의논을 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오교리 덕’을 지명하면서 그러한 관계를 앞으로도 유념하여 관리해야 함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씨는 남편이 과거 길에서 만나게 될 인연에 대해서도 사권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지상분너’나 ‘영남 유익 친구들’이나 누구라도 ‘신근하고 점잔흔 니’를 가려서 교유해야 하며 ‘처행’은 ‘여리박빙’같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문 ⑨는 1885년 정연갑의 진사 급제 소식을 받고 기뻐하며 쓴 편지의 일부로, 여기서 변씨는 남편에게 급제의 기쁨을 나눌 때 그 범위를 ‘재상 친구나 영남 친구나’ 누구든 가리지 말고 ‘다 디접하라’고 말한다. 급제 전에 사권의 기준을 당부하며 사람을 조심스럽게 가려가며 만나야 한다고 당부하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축하할 자리에는 누구든지 함께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교유가 곧 처신으로 연결됨을 변씨가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그는 ‘님지 공논상의 올니는 지상들 은혜’가

29) 신상보등(身上保重)히시고 지상(宰相) 친구나 영남(嶺南) 친구나 다 디접(待接)히시옵 …… 님지 공논상(公論上)의 올니는 지상들 은혜를 무어스로 감스올고 난망난망(難忘) (37번, 597~598쪽)

‘난망’임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 역시 양반 남성들의 교유가 곧 그 인물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관직 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재상들의 ‘공논상’에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 교유 관계가 정치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변씨 부인이 잘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⑩ 삼십 년 객고(客苦) 포원(抱願)이던 과거를 이루셔서 장안 화류 대도상(大道上)에 빛난 광채 띄우시고 날로 풍우 진퇴영광(進退榮光)을 이긋은 모르오니 절통하옵니다. …… 세상의 희한한 쾌락 즐겁사온 경사가 사람들 중에 우리 뿐인 듯합니다. …… 아이들 즐거워하고 좋아좋아 뛰며 어린 놈 철없이 즐기는 모습 더욱 신기신기할 뿐입니다. …… 좋은 경사(慶事)를 자식들 두고 외로이 감당하시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애달픈 마음 측량 못하옵니다. 도문(到門) 일자는 과히 머니 대답하옵니다. 백사(百事)가 미비하여 구차하심을 어찌하겠습니까. …… 옷은 아니 보내신다 하오니 버선, 행진, 토시, 날날이 추심해 주십시오. 있는 돈대로 다 쓰기를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옵니다.<sup>30)</sup>

⑪ 주인은 누구에게 하셨는지, 서울이 다 편한지 (궁금합니다.) 임자도 근근 득달하여 피로함이 가볍지 않을 듯합니다. 부디 약침이나 지어 즉시 여독을 풀고 음식 배불리 때 놓치지 말고 거하시는 숙소도 부디 잘 하십시오. …… 원업이는 거행(擧行) 양반 모셔본 놈이니 든든하게 믿을 만 할 것입니다. 곧 오시든지, 아니면 조금 데리고 있으면 든든할 듯합니다.<sup>31)</sup>

30) 삼십년 객고(客苦) 포원과명(抱願科名)을 일우오셔 장안화류(長安花柳) 대도상(大道上)의 빛난 광채(光彩) 띄우시고 날로 풍우(風雨) 진퇴영광(進退榮光)을 이긋은 모르오니 절통(切痛)호오이다 …… 세상(世上)의 희한쾌락(稀罕快樂) 즐겁사온 경사(慶事) 인인(人人)의 우리 혼자인 닻 …… 아히들 즐기고 조하조하 뛰며 어린 놈 철업시 즐기난 상(狀) 더욱 신기신기하오며 …… 조은 경사(慶事)을 자식들 두고 외로이 감당 오죽하시잇가 이답스음 측양(測量) 못호옵 도문(到門) 일자는 과이 머리 답답 백사미비(百事未備) 구차(苟且)호음을 엇지호올고 …… 오손 아니 보너다 호오니 보선 흥긴 토시 낫낫 추심(推尋)호시옵 잇난 돈다이 허비 아라 호시옵 (31번, 535쪽)

⑫ 다스리시는 영광을 그렇게 입사오시니 감축감축입니다. 공명도 유만부동, 영남에 하나 주시는 성공을 우리 진사님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만은혜입니다. …… 도문(到門) 일지는 십칠 일이라니 어화청삼(御花靑衫)과 금의환향(錦衣還鄉)에 만인간의 흠앙을 같이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경성에서 묵는 집의) 주인은 옮겨 정 선전(宣傳) 덕인가 봅니다. 살뜰히 살펴주시는 일 고마울 뿐입니다. …… 원업이 말 몰며 갈 것입니다. 돈 없으니 어려우나 가마 하나 사와서 타고 오실 것을 말 타고 오시는 것입니까. 솔창(率倡)은 기어이 아니 하실 것이라 하였으니 무방하겠습니다.<sup>32)</sup>

정씨 가문과 같이 지방에 근거를 둔 양반들의 과거 준비는 주거와 의식(衣食), 노비와 말 등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필요로 했다. 과거에 급제하고 난 후에도 이어지는 여러 절차들, 즉 방방연(放榜宴), 유가(遊街), 도문(到門)과 같은 행사에 필요한 물건의 마련, 관복과 관대 등 벼슬살이에 필요한 것들의 준비 역시 가문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sup>33)</sup> 양반 가문에서 과거를 본다는 일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필요한 전적인

31) 주인(主人)은 누계 하여시며 서울이 다 편하고며 넘지도 근근 득달(得達)하여 노곤 비경(路困非輕)할 듯 부더 약첩(藥貼)이나 지어 즉시 여행(旅害)을 풀고 음식충복(飲食充腹) 실시(失時) 말고 거쳐(居處) 부더 줄하고 …… 원업이는 잘 거행 양반 되셔본 높이가 미더워실 듯 든든 곳 오나가 조금 다리고 이시면 든든홀 듯 (33번, 553~559쪽)

32) 어하(御下)의 영광을 그대지 입사오시니 감축감축 공명(功名)도 유만부동(類萬不同) 영남(嶺南) 하나 주시는 성공(成功)을 우리 진스님 될 줄 만만 은택은택(恩澤) …… 도문일자(到門日字) 십칠일(十七日)이 어화청삼(御花靑衫)과 금의환향(錦衣還鄉)의 만인간(萬人間)의 흠앙(欽仰)을 꺾치 드러보스이다 주인(主人)은 옮겨 덩 선전(宣傳) 덕인 듯 술들 두호(斗護)하는 일 고맛습 …… 원업이 말 몰며 가업 돈 업스니 어려우나 가마 하나 스오더면 타고 오실 거술 말 타고 오실나 솔창(率倡)은 기어 아니홀나 하시니 무방하옵 (37번, 597~598쪽)

33) 전경복, 앞 논문(2011)은 과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방에 살던 가난한 선비들의 벼슬 살이 준비에 필요한 물품 마련의 어려움, 관복, 관대, 노마(奴馬), 주거와 하숙 등의 문제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위 예문들은 양반 가문의 여성들이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문 ⑩은 과거에 급제한 시부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이후의 준비를 의논하는 변씨의 간찰이다. 정현상은 1873년 45세의 나이로 진사에 급제했으며 이를 알게 된 거창의 본가는 ⑩에서 보는 것처럼 ‘아히들 조하조하 쉼고 즐기며 ‘세상의 희한한 쾌락’이라 할 만한 큰 기쁨에 싸인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변씨는 시부가 홀로 먼 타향인 서울에서 과거 합격 후에 맞게 될 상황에 대해 ‘조은 경사’를 ‘자식들 두고 외로이 감당’해야 할 것이니 ‘애답사음 측량 못한다’고 하며, 동시에 ‘도문(到門)’ 일정이 멀다는 점과 ‘백사(百事)가 미비하여 구차할 것’을 걱정한다. 이는 시부의 급제 소식을 기뻐하면서도 이후 급제자들이 서울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물적 지원을 민첩하게 뒷받침하지 못하는 민망함을 전하면서 동시에 ‘도문’<sup>34)</sup> 일정의 지체로 인한 서울 생활의 구차함을 걱정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이외에도 변씨는 시부와 남편에게 ‘주인’을 어디에 했는지, ‘뎡 선전 덕’으로 옮겼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주인이 ‘술들 두호하는 일’을 고맙게 여기기도 하며, ‘보선, 흥진, 토시’ 등을 ‘낫낫 추심’하여 찾아오라고 챙기기도 한다. 상경길의 긴 여정에 지쳐있을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약을 지어 ‘즉시 여해(旅害)를 풀 것’을 지시하기도 하고, ‘거행 양반 모셔본’ 경험에 있는 하인인 ‘원업’이를 든든하게 딸려 보내기도 하며, 금의환향하는 길에 ‘가마와 말’ 중에 무엇을 타고 올지, 급제 후 귀향하는 영광스러운 길에 ‘솔창(率倡)’<sup>35)</sup>을 과연 하지 않을 것인지 의중을 확인하기도 한다.

34) ‘도문’이란 급제자가 합격의 증표인 백패(白牌)를 갖고 귀향하여 치르는 잔치인 도문연(到門宴)을 말하는 것으로, 이 일정이 멀게 잡히는 상황으로 인해 시부의 서울 생활이 지체되면서 의식(衣食)에 관계된 문제로 곤란을 겪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씨의 간찰은 양반 남성의 출처와 벼슬길을 좌우하는 갈림길 이자 가문의 일대사인 ‘과거’라는 제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양반 여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변씨의 언간은 고향의 본거지에 있던 양반 여성들이 가문의 남성들이 응시해야 할 시험 일정, 장소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며, 이후의 환로에 필요한 연망과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은 먼 길을 오가는 남성들의 여정에 필요한 자원들, 디향에서의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과 일상의 기반들, 과거 급제 이후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물질적이고 절차적인 필요들을 지원하고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밀양 변씨의 간찰은 남성들의 과거 급제와 환로 진출에 있어서 양반 여성의 역할이 지적, 전략적인 차원부터 물질, 경제적 차원까지 포괄하는 것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거창 지방에 세거해온 초계 정씨 가문의 언간 자료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나타난 일상과 문화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과 의미를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정씨 간찰은 조선후기 언간이 갖고 있는 평면성을 벗어난 자료적 입체성과 선명성을 가진 드문 자료군으로, 여러 편의 장문 언간을 남긴 여성 필자들의 존재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정씨 간찰 자료군의 전반적 양상을 정리하여 주요한

---

35) ‘솔창(率倡)’은 과거 급제자가 자기 고향에 돌아갈 때 피리와 풍악을 앞세우는 일을 말한다.

왕래 관계와 인물 정보 등을 소개하고 한중연 편 역주 자료집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였다. 또한 ‘정현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3대에 걸친 주요 필자들과 간찰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들을 ‘조부 세대, 부친 세대, 자녀 세대’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본고에서 특히 역점을 두어 살펴본 것은 조선후기 양반 가문에서 여성이 담당했던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정현상의 며느리인 밀양 변씨의 10편의 간찰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그 속에 나타난 여성의 실질적 가문 경영 주체로서의 역할을 ‘경제적 운용’의 차원과 ‘과거 전략의 기획과 지원’의 차원에서 주목하였다. 지방의 양반 가문에서는 과거 시험 및 벼슬 생활로 인해 가장인 양반 남성이 부재하는 것이 상시적인 상황이었으며, 그러한 속에서 가문 전반의 경제 운영의 부담과 책임은 변씨와 같은 종부인 양반 여성의 몫이었음을 살펴보았다. 남편과 시부에게 보내는 간찰에서 수입과 지출을 이루는 다양한 항목들의 관리, 경제적인 운영과 관련된 갈등의 조정, 최종적인 관리 책임의 부담 등을 고백하는 내용들 역시 양반 여성들의 경제 활동의 성격이 매우 주도적인 관리자로서의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변씨의 간찰을 통해 과거 전략의 기획과 지원 측면에서도 양반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변씨의 언간에는 시부와 남편을 비롯한 가문 구성원들이 과거를 준비하고 응시할 때 가문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의논과 조정이 필요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음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과거에 필요한 연망과 교유의 정치성을 이해하고 이를 조언했을 뿐 아니라 과거 준비에서 급제 이후까지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요구가 생기는 절차들을 챙기고 충족시켜 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문의 실질적 위상과 명성을 좌우하는 과거에 있어서도 양반 여성의 지원과 이해의 역할이 절대

적인 것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초계 정씨 언간은 본고에서 살펴본 여성의 가문 운영의 차원 외에도 19세기 양반 가문의 일상 문화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읽어볼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흥미로운 면모를 갖고 있다. 40여 통에 이르는 간찰들의 상호 연관성, 각각의 간찰들에 나타난 정보들을 재취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주요 등장 인물들의 관계성, 이들 인물 각각의 개인사의 조명, 개별적인 인물들의 접점이 만들어내는 가족사의 재구성 등 아직 탐구해야 할 많은 연구 과제들을 안고 있는 자료인 것이다. 향후 이러한 특수성과 자료적 가치를 다면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의성 김씨 천전과 · 초계 정씨 한글 간찰』, 『조선후기 한글 간찰(언간)의 역주 연구』 10권, 태학사, 2009, 1~698쪽.
- 김경미, 『가(家)와 여성- 18세기 여성 생활과 문화』, 도서출판 여이연, 2012, 1~319쪽.
- 김경용, 『조선후기 京·鄕 유생의 생원·진사 진출실태 비교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40권 제4호, 한국교육사학회, 2018.12. 57~81쪽.
- 김남경, 『언간독과 증보언간독 비교 연구』, 『민족문화논총』 24, 영남대민족문화연구원, 2001. 29~56쪽.
- 김은성, 『<규합한훤>을 통해 본 격식적 편지문화의 전통』, 『어문연구』 32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127~151쪽.
- 김정경, 『<선세언적>과 <자손보전>에 실린 17~19세기 여성 한글 간찰의 특질 고찰』, 『정신문화연구』 34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71~193쪽.
- 민현구, 『과거제는 한국사에 어떤 유산을 남겼나』, 『한국사 시민강좌』 46, 일조각, 2010.2, 169~188쪽.
- 백낙천, 『조선후기 한글 간찰의 형식과 내용』,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2006. 6. 161~195쪽.
- 이남희, 『과거 제도, 그 빛과 그늘』, 『오늘의 동양사상』 18,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8.4, 117~136쪽.
- 전경목, 『조선후기 지방유생들의 修學과 과거 응시』, 『사학연구』 88, 한국사학회, 2007, 263~309쪽.
- 전경목, 『한글 편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과거제 운용의 한 단면』, 『정신문화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9, 27~57쪽.
- 최진옥, 『생원 진사시와 서울의 과거 풍속』, 『향토서울』 67, 서울역사편찬원, 2006.2, 75~123쪽.
- 홍은진, 『방각본 언간독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1, 태학사, 1997, 84~97쪽.
- 홍인숙, 『조선시대 한글 간찰(언간)의 여성주의적 가치에 대한 재고찰 시론』, 『이화어문연구』 33, 이화여자대학교한국어문학연구소, 2014. 8, 105~134쪽.

ABSTRACT

Daily Life and Culture of Noble Clan in  
the 19<sup>th</sup> Century through Eongan(Korean Old Vernacular Letters)  
—Focusing on the Old Hangeul Letters by a Woman of Chogye Jung's Clan\*

Hong, In-sook

This study researches the cultural signific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Eongan(Korean old vernacular letter) materials of Chogye Jung's clan as a noble family in Geochang region, Gyeongnam in the late 19<sup>th</sup> century. The Eongan preserved in Jung's clan about 40 letters in total. The information of the writers and characters of these letters could be traced, and the background of the time could be determined as the 1880s-1890s. And they also show the intertextuality that could assume a specific personal affair or family history by recomposing individual information between letters.

Especially,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en letters by Mrs. Milyang Byeon who was a daughter-in-law of Jung's clan. Those letters by Mrs. Byeon are very long and concrete, filled with vivid expressions, which is very different from Hangeul letters by other wom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e old Hangeul letters by Mrs. Byeon, this study analyzed two things as follows. First, the noble wom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played the overall roles in the economic management and direction of clans. Second, they played the core roles like actively discussing and supporting the strategy and planning of civil service examinations for men.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more detailed follow-up researches on the rest letters of Jung's clan. The themes like the relationship of main characters shown in Eongan of Jung's clan, examination of personal

---

\* This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the AMOREPACIFIC Foundation.

affairs of each character, and the recomposition of family history would be handled in the next research.

**Key Words** Eongan, the old Hangeul letters, late Joseon Dynasty, Chogye Jung's clan as a noble family, Geochang region, daily life and culture, economic management, civil service examinations

논문투고일 : 2019.09.27

심사완료일 : 2019.11.10

게재확정일 : 2019.11.25